

### 고 3 청소년의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 수준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eniors' Experience of Daily Life Activities and Levels of Depression

이 미 리\*\*  
Lee, Mee Ry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adolescents' daily experience of schoolwork and leisure activities relate to depression. A sample of 58 high school seniors reporte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daily activities and their affect states in these activities seven times a day for a week.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experience and depression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ignificant zero order correlations were followed up by conducting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using background variables as control variables.

While the amount of time spent in schoolwork and leisure activities was not an important factor relating to depression, affect states in specific daily activities were related to levels of depression. In particular, affect states during schoolwork activities were related to depression; however, these states during leisure activities were unrelated to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veryday manifesta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was not prevalent across daily contexts, but was limited to a specific context.

#### [.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흔히 우리 청소년이 나타내는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은 입시 위주의 하루 일과와 하루 종일 머릿 속을 떠나지 않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한다(김종주, 1990; 이성진, 1991;

정범모, 김호권, 이성진, 권균, 이종승, 1993). 일반적으로, '입시지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학교 공부로만 일관된 균형감을 상실한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는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배종근, 이미나, 1988; 정범모 외, 1993; Lee, 1994; Won,

\* 이 연구는 1994년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1989). 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부적응 증상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은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입시지옥의 어떠한 면이 부적응 증상들을 초래하는지를 사색의 수준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가능하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하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활동 중에 청소년 자신들은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제한되어 있고(문화방송, 1991), 일상 생활 활동의 어떠한 면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 즉 '입시병'과(김중주, 1990) 연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 경험과 입시병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을 우울증의 척도로서 진단하였다. 넓은 의미의 우울증은 우울한 정서 상태, 의욕 상실, 주의 집중력 감퇴 등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뿐 아니라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 예를 들면, 식욕의 변화, 체중의 변화, 불면증 등을 수반한 복합적인 증상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Brooks-Gunn & Peterson, 1991; Maag & Forness, 1991).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다른 여러가지 부적응 행동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대인관계, 학업 성적 저하,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ops, Lewinsohn Andrews & Roberts, 1990),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경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따라서 청소년기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적응을 위한 주

요 과제이다.

미국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일상 생활 경험(daily life experience)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 중 여가 활동(leisure activity)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또 여가 활동 중에 긍정적인 정서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수록 우울증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한다(Larson & Kleiber, 1993; Larson, Raffaelli, Richards, Ham & Jewell, 1990). 한편, 학교 공부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우울증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학교 공부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나 만족감 정도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Reich, McCall, Grossman, Zautra & Guarnaccia, 1988; Reich & Zautra, 198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일상 생활 경험을 학교 공부와 여가 활동 등의 활동(activity)에 따라 분류했을때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나 활동 중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우울증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 나라 청소년의 입시병과 입시 지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입시지옥'을 일상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따라서 그들의 일상 생활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 증상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리라 예상되는 고 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살펴 보았다.

- 1) 고 3 청소년이 하루 중 공부와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은 우울증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가?
- 2) 고 3 청소년이 하루 중 공부와 여가 활동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인 상태는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

일상 생활 경험은 객관적인 경험(혹은 외적 경험)과 주관적인 경험(혹은 내적 경험)으로 측정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Larson, 1987; Larson & Richards, 1989). 객관적인 경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질 하루 24시간을 각 활동에 어떻게 배당하는가 다시 말해 하루중 각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로 측정되며 주관적 경험은 각 활동중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측정된다.

이러한 일상 생활 경험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은 인과 관계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일상 생활 경험이 우울증을 유발시키거나 그 정도를 악화시킨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들이고(일상 생활 경험→우울증), 다른 하나는 우울증이 일상 생활 경험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수행된 연구들이다(우울증→일상 생활 경험). 이들 두 가지 입장은 연구 결과의 해석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나,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기본 전제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쪽 접근 방법만을 지지하기 보다는 개인의 발달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를 주장하는 생태학적인 접근방법의 측면에서(Bronfenbrenner, 1979; Lerner, 1990), 일상 생활 경험과 우울증은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일상 생활 경험 ↔ 우울증), 위의 두 가지 입장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 중에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이나 만족감은 학교 공부나 다른 부담을 주는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Larson & Kleiber, 1993). 특히 여가 활동 중 운동을 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또 운동 중에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이나 불안의 정도는 감소하며(Brown & Siegel, 1988; Morgan & Goldston, 1987), 이러한 운동과 정신 건강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욱 의미 있게 나타난다고 한다(Larson et al., 1990). 반면, 여가 활동 중 TV를 보는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정신 건강의 정도는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있다(Hendry & Patrick, 197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여가 활동의 객관적, 주관적 경험은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으나 관계의 방향은 여가활동의 종류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 공부를 위한 활동 중에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는 여가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으나, 객관적 경험 즉, 학교 공부에 보낸 시간의 양은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Larson et al., 1990; Merrick, 1992).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의 입시병은 공부만 하는 불균형적인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시병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 원인은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공부하는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미국의 청소년들, 다시 말해 학교 공부나 대학 입시에 우리 처럼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된 결과들이므로,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학교

공부에 보내는 시간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 고 3 청소년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14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한다고 한다(정범모, 1989; 정범모 외, 1993).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 자유 시간이 부족하며,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유 시간의 부족이라고 보고한다(정범모 외, 1993). 또한, 우리 나라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하루중 공부를 하는 동안 가장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Won, 1989).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가장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루 하루를 생활한다. 이러한 일상 생활 경험 즉, 지나치게 긴 공부시간, 여가 시간의 부족, 그리고 공부중의 부정적 정서 경험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 2.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구통계론적인 변인의 영향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통계론적인 변인은 일상 생활 경험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성인의 일상 생활 경험에 대한 인구통계론적인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은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남자에 비해 여자는 집안 가사일, 아이 돌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 활동이나 수면을 위해서는 더 짧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Bird & Fremont, 1991).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상 활동에 보낸 시간의 양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집안 일, 독서,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요리나 T.V.를 보는 데는 더욱 적은 시간을 보낸다

고 한다(Lawton, Moss & Fulcomer, 1987). 한편, 인구통계론적 변인들은 우울증 수준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Allgood, Lewinsohn & Hops, 1990; Nolen-Hoeksema & Girgus, 1994;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나 성인들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빈도나 정도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인구통계론적인 변인의 일상 생활 경험이나 우울증과의 관계가 두 변인 즉 일상 생활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론적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생 56명이다(남자, 여자 각 28명). 이들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부산시 인문계 1개 남자고등학교 2개반, 1개 여자고등학교 2개반에서 무선 표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가 모두 계시는 가족의 자녀들이었으며(90%), 아버지의 직업수준은 반정도가 경영직이나 전문 기술직과 같은 중류층에 속했고(46%), 어머니는 60% 이상이 직업을 갖지 않았다(69%). 부모의 교육 정도에 있어서는 거의 1/3정도의 아버지들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이었으며 어머니는 7%만이 대졸 이상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 없이 연구대상자 모두가 부모님은 자신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한다고 인지하였으며, 자신들 역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론적 변인을 포함한 배경 변인(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교육적 기대 정도, 자신의 학교 성적, 기대하는 최종 학력, 대학입시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보내는 시간과 그 활동 중 경험하는 정서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험표집 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Larson, 1989)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수준은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Kovacs, 1985)을 통해 측정되었다.

### 1) 경험 표집 방법(ESM)

일상 생활 중의 여러 가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그 활동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경험 표집 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으로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반복 측정하였다. 경험 표집 방법은 일상 생활 환경에서(즉, 행동반응을 실험 혹은 측정하기 위한 실험실 혹은 질문지를 실시하기 위한 학교교실이나 연구실 등의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경험하는 활동의 종류, 활동에 보내는 시간, 그리고 활동 중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태학적인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높은 것이 큰 장점이다. 다시 말해, 실험실 등의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인간의 행동 반응은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험 표집 방법은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측정하므로, 측정 환경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여준다. 또한, 행동 반응을 현재 일어날 때, 일어난 장소에서 측정하게 되므로 회상에 의한 편견(retrospective bias)이 개입될 가능성도 적다.

경험 표집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는 소리 신호를 받기 위한 기구(예를 들면, 삐

삐나 전자 손목 시계)와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지를 지니고 다니면서 소리 신호가 주어질 때마다 질문지를 작성하게 된다(하루에 여러 번 반복 측정하게 되므로 같은 내용의 질문지 묶음을 손바닥 정도의 작은 수첩 크기로 만들어 지니고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고안한다). 대개 하루에 7~8회씩 일주일간 실시하며 질문지에 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분 정도면 되도록 질문지의 문항 수를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조절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시간은 3시간 간격이나 분은 무선으로 정함) 하루에 7회씩 '삐삐' 소리 신호를 주도록 미리 입력된 전자손목시계와 소리 신호가 들릴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던 활동과 그 활동중 느끼는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지 묶음을 지니고 다녔다. 소리 신호는 사전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깨어 있는 시간을 되도록 모두 포함하는 시간인 새벽 6시반부터 밤 12시 반 사이에 주도록 결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총 주어진 소리신호의 80%에 답하였다.

#### a)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내는 시간 측정

하루중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오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질문지에 한문항의 개방식 질문("소리신호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을 포함시켰다.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반응 내용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었다. 각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은 반복측정을 통해 측정된 전체 활동 수에 대한 각 종류별 활동수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b) 일상 생활 활동 중의 정서 상태 측정

일상 생활 활동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중 우울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여지는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Larson(1989)의

Experience Sampling Method Self-Report Form에 포함되어 있는 정서 상태 측정 Scale을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대조적인 정서 상태를 양극단으로한 7점 평정척도이다. “소리신호가 주어지기 직전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라는 지시문과 함께 다음 각 네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1) 행복한-불행한 (2)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인 기분이 드는 (3) 유쾌한-짜증나는 (4) 스트레스를 받는-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서 상태 측정 Scale의 점수는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으며(Larson, 1989), 참고로 우리 나라 중, 고등학교 각 2학년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이러한 정서 상태 측정 Scale 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Won, 1989).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0에서 6점, scale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말한다. 반복 측정된 정서 상태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보기 위해 산출한 Cronbach의 Alpha값은 .81이었다.

## 2)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Kovacs(1985)에 의해 개발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증의 복합적인 증세(우울한 정서, 삶에 대한 의욕상실, 신체적인 증상, 부정적인 대인관계,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총 27문항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정도의 심각성을 세 문장으로 구분해 놓았다. 예를 들면, (1) 나는 가끔 슬프다 (2) 나는 자주 슬프다 (3) 나는 항상 슬프다로 구분되어 있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묘

사하는 문장을 각 문항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점이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다. 높은 점수가 우울증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 값은 .86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조사는 여름방학 중에 실시되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한 CDI는 경험 표집 방법(ESM)을 실행하기 전날 수업중 교실에서 본 연구자가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CDI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25분이었으며 경험 표집 방법은 약 45분간의 절차에 대한 orientation과 연습을 거친 후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전자 손목 시계와 질문지 묶음을 지니고 다니면서 소리 신호가 들리때 마다 한 장씩 반복적으로 하루에 7회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에 답한 후 나중에 다시 고치거나 소리 신호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답해버리는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이미 반응한 질문지는 이틀에 한번씩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X와 SPSS-PC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총 49회 반복으로 측정된 경험 표집 방법 질문지 문항의 반응은 평균을 산출하여 각 개인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 정서상태,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기술적 특징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해선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과 배경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한 부분 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a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일상생활 활동의 종류 및 각 활동에 보낸 시간의 유형

고 3 청소년이 하루를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험 표집 방법(ESM) 질문지에 제시된 문항 (“소리신호가 주어지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에 대한 서술적

〈표 1〉 고 3 청소년의 하루 깨어 있는 시간에 대한 각 일상 활동에 보낸 시간의 백분율

활동	남자	여자	t
수업	19.63	20.16	
자율학습	7.75	6.04	
개별공부	17.55	16.86	
소극적 여가활동	9.21	17.69	
TV 보기	9.08	5.57	2.74**
음악듣기	1.14	1.98	
대화하기	5.86	5.40	
게임을 피우기	3.15	4.74	
적극적 여가활동	6.92	2.88	3.46**
운동	2.67	.36	
창의적 여가활동	3.11	2.03	
문화적 여가활동	.52	.49	
전자오락, 닌텐도, 컴퓨터게임	.62	0.00	
기타활동	29.93	36.36	-2.65**
종교활동	.07	0.00	
식사 하기	4.88	6.44	
오가는 활동	4.54	7.21	-2.77*
건강 관리 활동	.15	.10	
휴식	12.54	9.34	
잡일과 심부름	.24	1.00	
씻기, 화장실 가기	7.51	12.26	-2.77*

\*p<.05 \*\*p<.01

반응을 기능적인 영역(functional category)별로 분류한 결과 6가지 유형과 20가지 하위 유형의 활동이 나타났다. 분류된 활동의 내용과 각 활동에 보낸 시간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백분율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에 의하면 고 3 청소년은 공부하는데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보내고 여가 활동에 깨어 있는 시간의 사분의 일을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먹기, 휴식하기, 씻기, 잡일 하기,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기 등의 기타 활동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에 보내는 시간의 반 이상은 교실에서의 수업 시간이거나 자율 학습 시간 이었고 나머지는 방과 후 집이나 다른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여가활동은 Juster와 Stafford(1985)의 분류를 기초로 적극적 여가 활동과 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나누었다. 적극적 여가 활동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노력을 요하는 여가 활동으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 및 야외놀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 여가 활동, 연극을 보거나 음악회를 가는 등의 문화적 여가 활동 그리고 닌텐도, 컴퓨터 게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소극적 여가 활동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노력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친구와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고 3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중 80%가 소극적 여가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루 일과가 학교 공부에 치우치고 짧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일상 생활 활동 유형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활동별 시간의 양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TV를 보거나 적극적 여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몸을 돌보거나 외모를 꾸미는데 더 많

은 시간을 보냈다.

2. 일상 생활 활동중의 정서 상태

일상 생활 활동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 수준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묶어서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상 활동중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는 각 개인별로 하루에 7회씩 일주일간 총 49회 반복 측정되었다. 이와같이 반복 측정된 정서 상태 점수들의 평균을 각 개인의 하루 평균 정서 상태 수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반복 측정된 정서 상태 점수들을 활동 유형별로 분류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를 활동별 평균 정서 상태 수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별 평균 정서 상태가 개인의 하루 평균 정서 상태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각 활동별 평균 정서 상태 점수를 z점수로 전환하여 그 z점수가 0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t검증을 하였다. 여기서 z점수는 각 개인의 활동별 평균 정서 상태 점수에서 하루 평균 정서 상태 점수를 뺀 값을 각 개인의 표준 편차로 나눔으로써 산출하였다. 이러한 검증 방법은 하루 평균 정서 상태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통제함으로써, 정서 상태가 활동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고 3 청소년이 일상 생활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가 활동중에는 긍정적인 반면, 공부를 하는 중에는 부정적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 3 청소년은 수업, 자율학습, 그리고 개별공부 등 공부시간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하루 평균 정서 상태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로 부정적 이었으며 적극적 여가 활동이나 소극적 여가 활동

등 여가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하루 평균 정서 상태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로 긍정적 이었다.

<표 2> 고 3 청소년의 하루일상중 경험하는 정서 상태'

활 동	정서상태		
	평균	표준편차	z점수 <sup>2</sup>
하루 평균 정서상태	11.90	2.17	
<u>공부</u>			
수업	10.64	2.83	-.28**
자율 학습	10.90	3.61	-.26**
개별 공부	11.22	3.22	-.15**
<u>여가</u>			
소극적 여가 활동	12.52	3.38	.12 <sup>+</sup>
적극적 여가 활동	15.05	4.39	.61**

<sup>+</sup>p<.10    **\*\***p<.01

1. 높은 점수가 긍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 함(점수 범위=0-24)
2. z점수의 0과의 차이를 t검증함. -z점수는 하루 평균 정서 상태보다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z점수는 하루 평균 정서 상태보다 긍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3. 우울증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표준화 연구가 실행되지 않아서 우울증의 심각성 여부를 진단할 기준 점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13점 이상(CDI의 점수범위는 0-54점임)을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우울증으로 진단한다(Kovacs, 1985).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남자는 평균 15.82(표준편차 9.55), 여자는 평균 20.42(표준편차 8.09)로서 우울증 정도가 높았으며, CDI점수에 있어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같은 학



년의 미국 청소년 집단(N=62)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면 남자의 경우 평균 9.35(표준편차 6.09), 여자는 11.90(표준편차 7.49)이었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증 정도는 이들 미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09, p<.001$ ).

#### 4.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우울증간의 관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 공부와 여가 활동의 각 하위 범주별 활동에 보낸 시간의 양과 우울증 점수간의 Pearson 적률 상관 관계를 구하였으며, 상관 관계가 의미 있는 경우에 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우울증에 모두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는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하는 부분상관 분석(Partial Correlational Analysis)을 추후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고 3 청소년의 하루 일상 활동들에 보내는 시간과 우울증간의 상관 관계

활 동	남자	여자
공 부		
수 업	.09	.16
자율 학습	.43*	.08
개별 공부	.03	-.02
여가 활동		
소극적 여가 활동	.18	.00
적극적 여가 활동	-.37*	-.15

\* $p<.05$

<표 3>에 의하면 하루중 공부와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우울증과의 의미 있는 상관은 남학생과 특정 활동에 제한되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율 학습 활동에 많은 시

간을 보낼 수록, 적극적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할 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학습 시간과 우울증, 적극적 여가 활동 시간과 우울증의 각 변인들과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는 배경 변인은 없었으므로 부분 상관 분석은 추후로 실시되지 않았다. 적극적 여가 활동중 어떤 종류의 활동이 남학생의 우울증과 관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적극적 여가 활동의 하위 네가지 활동(운동 및 야외 놀이, 창의적 여가 활동, 문화적 여가 활동, 닌텐도 및 컴퓨터게임)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우울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의적 여가 활동(예를 들어, 독서 하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등)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록 우울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활동을 제외하고 수업이나 개별적 공부에 보내는 시간과 소극적 여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남학생의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여학생의 경우,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많고 적음은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 3 청소년이 경험하는 입시지옥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시험 공부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시간이 부족한 등의 일상생활의 객관적인 경험보다는 그 활동들의 주관적, 혹은 심리적 경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 5. 일상 생활 활동중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와 우울증간의 관계: 연구문제 2

일상 생활 활동 중에서 공부하는 중에 느끼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여가 활동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 생활 활동 중의 정서적 상태와 우울증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 되어있다.

<표 4> 고 3 청소년의 하루 일상 활동에서의 정서적 경험과 우울증간의 상관 관계

활동	남자	여자
공부		
수업	-.65***	-.40*
자율 학습	-.59**	-.37 <sup>+2</sup>
개별 공부	-.39* <sup>1</sup>	-.23
여가 활동		
소극적 여가 활동	.02	-.27
적극적 여가 활동	.05	.03

\*p<.10 \*\*p<.05 \*\*\*p<.001

1. 입학 시험에 대한 자신감의 영향을 통제 하였을 때 의미 없는 상관으로 나타남.
2. 성과 기대하는 최종 학력의 영향을 통제 하였을 때 의미 없는 상관으로 나타남.

<표 4>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수업, 자율 학습, 그리고 개별 공부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할 수록 우울증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인구 통계론적인 변인이나 배경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분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수업과 자율 학습을 하는 동안에 느끼는 정서상태와 우울증 수준과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배경 변인인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자신감의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업중의 정서와 우울증과의 관계  $r = -.52, p < .01$ ; 자율 학습 중의 정서와 우울증과의 관계,  $r = -.46, p < .05$ ). 그러나 개별 공부를 하는 중에 느끼는 정서 상태는 배경 변인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자신감')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별 공부를 하는 동안 느끼는 정서 상태와 우울증간의 관계

는 배경 변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과 자율 학습 시간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울증 수준과 정서 상태와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 관계를 갖는 배경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분 상관 분석을 하였다. 우울증과 수업 시간 및 자율 학습 시간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와 공통적인 상관을 가진 두 배경 변인인 성과 최종 학력에 대한 목표의 영향을 통제하는 부분 상관 분석(second-order partial correlational analysis)을 한 결과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여전히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 반면( $r = -.27, p < .10$ ) 자율 학습 시간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고 3 청소년이 공부를 하는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특히 수업이나 자율 학습등, 집단으로 학교 교실에서 하는 공부시간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가 청소년들의 우울증 정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방과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공부 시간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서 상태와 우울증과의 관계는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한 자신감, 성적, 최종 학력에 대한 목표 등 배경 변인적 특징과 상관없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여가활동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우울증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 3 청소년의 일상 생활 활동의 개

관적 주관적 경험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일상 생활 활동중 공부와 여가 활동을 촛점을 맞추었으며 객관적 경험은 하루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각 활동에 보낸 시간의 백분율, 주관적 경험은 각 활동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로 측정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의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자율 학습 시간이 길수록, 적극적 여가 활동 시간이 부족할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았다. 이는 시험 공부에만 치우치고 여가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불균형적인 하루 일과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특히, 추후 분석에서 자율 학습에 보낸 시간의 양과 학교 성적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27, p=.17$ ). 이는 학교에서 자율 학습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적극적 여가 활동 시간과 우울증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적 신체적 노력을 요하는 적극적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Larson et al., 1990; Larson & Kleiber, 1993; Merrick, 1992).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을 경험하는 고 3 청소년 특히 남학생에게 적극적 여가 활동을 갖도록 권장하는 것은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위의 활동 이외의 일상 활동 즉 수업, 개별적 공부, 소극적 여가 활동에 보낸 시간은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여학생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일상 생활 활동에 보낸 시간의 양도 우울증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자료는 여름방학 중에 수집되었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보내는 시간의 양은 학기중보다 적을 수 있다. 다시말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도로 많은 시간, 즉 하루에 14시간이나 18시간(정원식 외, 1993; 김호권, 1991)을 공부에 보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여름방학 중의 하루 일과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시험 공부에만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고 3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는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적 건강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인이 아닐 수 있다. 학교 수업, 방과후 학원이나 과외수업, 그리고 독서실에서의 개별공부로 이어지는 하루 일과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수준에 관계없이 조직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부나 여가 활동 등 일상 생활 활동에 하루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우울증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외견상으로는 다른 건강한 청소년들과 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일상 생활 활동의 주관적인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 3 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는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Reich와 동료들에 의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Reich, McCall, Grossman, Zautra, Guarnaccia, 1988; Reich & Zautra, 1983). Reich는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학과 공부나 그 외 부담을 주는 일상 활동(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중에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우울증이나 신체적 적응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고 3 청소년

년들이 여가 활동 중에 경험한 정서 상태는 그들의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중 긍정적인 정서 상태의 경험이 우울증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Haworth & Duckler, 1992; Haworth & Hill, 1992).

공부와 여가활동 중에 느끼는 정서가 우울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유형을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고 3 생들의 일상 생활 경험 즉 '입시지옥'이 그들의 정신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일상 생활 활동 중 느끼는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3 청소년들이 하루 생활 중 공부하는 동안 경험하는 정서상태는 가장 부정적이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 생활 활동 경험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한편, 여가 활동 중에 가장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가 우울증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여가 활동 중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공부나 다른 부담을 주는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줌으로써 부적응 정도를 감소시키는 완충제(buff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제시해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들의 교육적 기대, 성적, 입학 시험에 대한 자신감 등 배경 변인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활동 경험이 우울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경 변인의 영향으로 인한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간의 허위적인 관계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배경 변인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일상 생활 활동과 우울

증 수준의 관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 한 개인을 일주일간 49회 반복 측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사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늘림으로써 배경 변인적 특성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의 일상 생활 활동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를 본다면 단순히 배경 변인적 특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경 변인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상 생활 활동 중의 정서적 경험과 우울증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에 대한 정의에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한다.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DSM-IV) (APA, 1994)에 의하면, 우울증 증세는 하루종일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중에도 맥락(context)의 변화에 따라 우울증의 증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우리나라 고 3 청소년의 우울증은 공부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상태로 나타나, 여가활동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울증의 증세가 하루중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는 활동에 의해 정의되는 맥락(context)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연구 I, 정신 건강연구 제1집. 서울:한양대학교 정신 건강 연구소.
- 김종주(1990). 입시병. 서울:하나의학사.
- 김호권(1991). 입시교육의 연속. 정범모(편). 교

- 육난국의 해부:한국교육의 진단과 전망 pp. 43-66. 서울:도서출판 나남.
- 문화방송(1991). 창사 30주년 기념 '91 MBC 청소년백서. 문화방송.
- 배종근, 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국민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교육과학사.
- 정범모, 김호권, 이성진, 권균, 이종승(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입시와 입시교육의 개혁. 서울:도서출판 나남.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s, H.(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3-6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Washington, DC: Author.
- Bird, C. E. & Fremont, A. M.(1991). Gender, time us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114-129.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ks-Gunn, J. & Petersen, A. C.(1991). The em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Special issu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 Brown, J. & Siegel, J.(1988). Exercise as a buffer of life stress:A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 health. *Health Psychology, 7*, 341-353.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t*. New York:Basic Books.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H., & Hill, J.(1990). Adult outcom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7*, 1112-1117.
- Hendry, L. B. & Patrick, H.(1977). Adolescents and televi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325-336.
- Hops, H., Lewinsohn, P. Andrews, J. & Roberts, R.(1990).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11-220.
- Juster, F. T. & Stafford, F. P.(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471-522.
-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Larson, R.(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A method for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 Larson, R. & Kleiber, D.(1993). Daily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P. H. Tolan & B. J. Cohler(Eds.), *Handbook of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with adolescents*(pp. 125-145). New York: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Larson, R., Raffaelli, M., Richards, M., Ham, M. & Jewell, L.(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Larson, R. & Richards, M.(1989). Introduction: The change life space of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01-509.
- Lawton, M. P., Moss, M., & Fulcomer, M. (1987). Objective and subjective uses of time by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 171-188.
- Lerner, R. M.(1990). Weaving development into the fabric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on the significance of Bandura's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Psychological Inquiry*, 1, 92-96.
- Maag, J. W. & Forness, S. R.(1991).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24, 1-19.
- Morgan, W. & Goldston, S.(1987). *Exercise and mental health*. Washington, DC:Hemisphere Publishing.
- Nolen-Hoeksema, S. & Girgus, J. S.(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424-443.
- Reich, J. W., McCall, M. A., Grossman, R. M., Zautra, A. J., & Guarnaccia, C. A.(1988). Demands, desires, and well-being: An assessment of events, responses, and outcom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392-402.
- Reich, J. W. & Zautra, A. J.(1983). Demands and desires in daily life:some influences on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41-58.
- Won, H. J.(1989). The daily leisure of Korean school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and leisure functioning.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Dept. of Leisure Studies and Services and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Oreg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